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 톨링힐스 호텔에서 공개된 전기차 '쏘울 EV'. 작년 출시한 '올 뉴 쏘울'을 기반으로 개발된 쏘울 EV는 27kWh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으로 최대 148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기아차 제공>

전기차, IT를 만나다 더욱 '스마트'해지다

기아자동차가 오는 4월 출시할 전기차 '쏘울 EV'를 지난 11일 국내에 공개하면서 첨단기술이 집약된 전기차 전용 텔레매틱스가 관심을 얻고 있다.

자동차와 IT(정보통신) 기술의 만남은 수년 전부터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선보였으며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14'에서 특히 도드라졌다.

기아차는 지난 2009년부터 국내 완성차 업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단독 전시관을 통해 참가중이며 쏘울 EV에 탑재되는 '유보 e 서비스'(UVO e Service)를 첫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iOS 7.1)한 애플 '아이폰'은 '카플레이'(CarPlay) 기능을 새로 선보일 만큼 IT와 자동차의 만남이 실제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쏘울 EV에 적용되는 텔레매틱스 기능을 살펴봤다.

◇유보 e서비스=스마트폰을 활용해 쏘울 EV의 예약 충전 및 공조, 원격 차량 상태 조회, 내비게이션 연동 충전소 검색 표시, 주행 가능 거리 표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차 전용 텔레매틱스 서비스다.

유보 e서비스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웹 페이지에서 실시간 원격으로 ▲충전 시간, 충전량, 공조 시스템에

약 설정 ▲차량의 충전상태, 충전 예상 시간 등 각종 에너지 정보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차량 주행 가능거리 등 다양한 정보 확인 및 차량 환경 설정이 가능해진다.

세대 인포테인먼트 및 운전자 중심의 주행 편의·안전 콘셉트 기술들도 대거 내놓을 계획이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신기술은 ▲전방 차량 및 도로 인프라와 통신해 사고, 교통정보 등을 미리 알려 안전

기아차, 4월 출시 쏘울 EV에 '유보 e 서비스' 탑재 스마트폰 이용해 예약충전·주행가능거리 등 확인

유보 e서비스는 차량 제어만이 아닌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페이스북과 연계해 운전자 맞춤형 엔터테인먼트 및 편의 기능을 강화한 '유보 & 페이스북(UVO & Facebook)' 서비스와 진보된 대화형 음성인식을 통해 운전자의 다음 동작을 예측하고 제안까지 가능한 유보 차세대 음성 인식 시스템(UVO Enhanced VR) 등도 있다.

또 안전운전을 돕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보 앱스(UVO apps)도 쏘울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인간중심 스마트카 기술=기아차는 유보 e서비스 외에도 빠르면 2~3년 내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차

한 주행 환경을 만드는 차량-인프라 간 통신 서비스 ▲도로 상황과 운전자의 감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음악 서비스인 스마트 라디오(Smart Radio) ▲스마트 폰과 내비게이션을 무선으로 연결해 HD급 고화질로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 표현하는 풀(Full) HD급 화면연동 기술 ▲개인 일정과 온라인 정보를 연동해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서비스 등으로 차량 안전과 더불어 더욱 실감나는 차량 멀티미디어 환경 강화에 중점을 뒀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는 자동차와 IT간의 융합 기술력을 확보해 '인간중심의 스마트 카'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이통사 고객정보유출 원인은 "보조금 경쟁 탓"

판매점간 가입자 유치 과열... 정보 사고뎀기 되풀이 "제조사는 제품으로 통신사는 서비스로 승부해야"

이동통신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러한 정보 유출이 이통사 간의 과당 경쟁 때문에 촉발됐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판매점간 가입자 경쟁 유치가 과열되면서 이를 위한 불법 개인정보 획득에 대한 유혹도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이통사들은 11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발표한 이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본사가 아닌 판매점 선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판매점들이 이처럼 가입자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때문이다. 휴대전화 보조금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로 결정되는데 판매점은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를 이윤으로 떼고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별도의 수당이 더해져 애초 수당을 목표로 리베이트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특정 시기에는 보조금이 휴대전화 출고가를 상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로 판매점들이 불법 텔레마케팅을 통한 가

입자 유치에 나서고, 텔레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통신사 고객 정보 확보에 혈안이 된다는 것이다. KT의 홈페이지 해킹도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점을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고객정보 확보가 판매실적과 직결된다 보니 판매점 간의 고객정보 사고뎀기가 계속된다"고 전했다.

정부와 업계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과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제조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단말기 보조금이 없다면 스마트폰의 출고가 자체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이통

사에 대한 재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특정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시작하면 나머지 사업자가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도. 업계 일각에서는 경쟁을 유발한 사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3개월인 변호이동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3개월마다 회사를 갈아타는 소위 메뚜기 가입자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제조사는 제품 경쟁력으로, 통신사는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며 "통신업계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실질적 규제정책 마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나서라"

전국 휴대전화 판매망 모인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이통유통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통통신사 제재 결정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개최

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이 집회에서 정부의 영업정지 규제와 관련해 설명을 발표하고 영업정지 철회, 보조금 규제, 생계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부를 청와대와 여야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정부는 시장 생태계를 고려한 실질적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통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일 이통 3사에 각 45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방통위도 13일 전체회의

'영업정지 철회 위한 결의' 전국이동유통협 항의집회

를 열어 이통 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방통위 역시 장기간 영업정지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풀어 오른 갤럭시 배터리 중국산 아닌 일본산

부풀어 오르는(스웰링·사진) 현상이 나타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당초 알려진 중국산이 아니라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 사이 국내외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가 돼 벌어진 것으로 업계가 추정할 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에 따라 갤럭시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부풀어오르는 현상도 이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있었다.

그러나 12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삼성전자에 일부 불량 배터리를 생산·납품한 이랜텍은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이온셀의 대부분을 중국이 아니라 일본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랜텍은 지난해 말 공시한 분기 보고서에서 "주요 원재료는 휴대폰

등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셀로 일본 히타치 및 삼성SDI 등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히타치로부터의 구입액은 1273억 9800만원으로 전체의 90%였고, 삼성SDI 등 기타 제조사로부터의 구입액은 140억3200만원(10%)이었다. 이랜텍은 보고서에서 중국산 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배터리 관련 사고의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비정품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이랜텍의 배터리가 일본산이란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랜텍의 배터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품질 관리도 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에도 소비자의 권고에 따라 이랜텍



이 납품한 갤럭시S3의 배터리에 한해 무상교환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또다시 부풀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의 소비자권고를 재차 받고서야 무상교환을 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 우려 KISA, 각별한 주의 당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카드사·이동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 행각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KISA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 ▲집단소송 안내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한 스피밍,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공공기관, 카드사, 통신사 직원이라며 이름, 카드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더라도 절대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 된다고 KISA는 강조했다.

노명선 KISA 침해사고대응단장은 "사이버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118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주식회사, 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직통, 010-3605-50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1200만원

● 공동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돈 빌려 주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